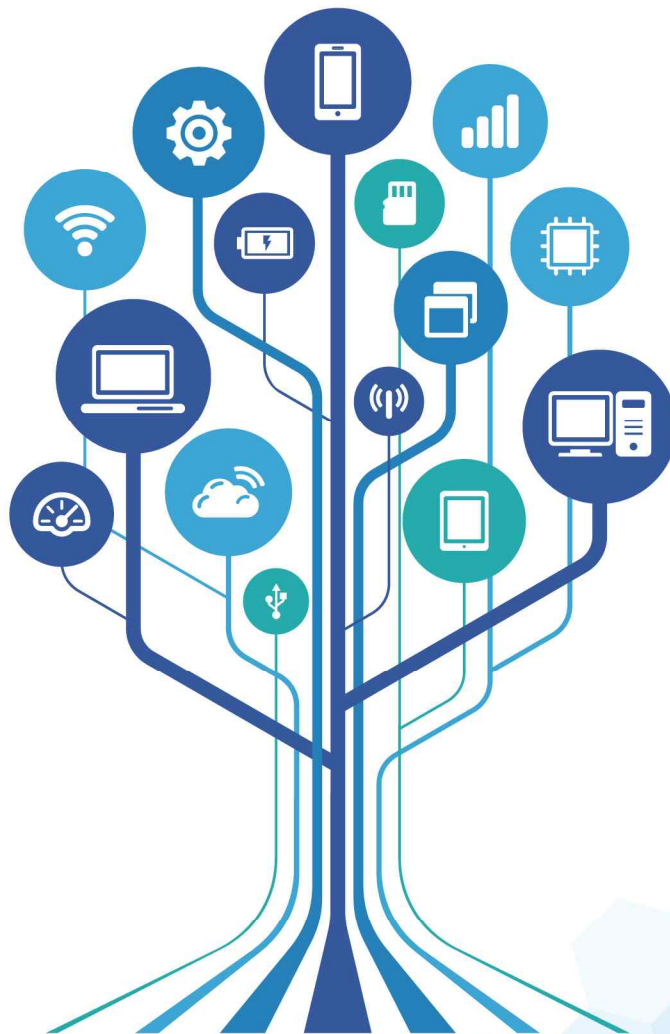


융합연구총괄센터

2019년 융합기술을 이용한 일본의 핀테크 동향분석 보고서 Vol. 6

Transdisciplinarity Trend Analysis Report



일본 핀테크 현황

01. 선정배경

◆ 세계 각국의 신용거래(cashless)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은 신용결제보다 현금사용이 더 일반화되어 있어 방일 외국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방일 외국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일 외국인의 결제 편리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현금 사용을 줄이고 신용거래를 높이려는 시책들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계는 지금 ‘Apple Pay’를 비롯한 컨택트리스 결제, ‘Alipay’, ‘WeChatPay’, QR코드 결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일본의 신용결제 마켓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가 신용거래를 추진해야 하는 목적 3가지

일본 정부의 신용거래 추진은 인바운드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현금 처리 비용 감소, 개인의 거래 내역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방일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상업 시설, 숙박 시설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100% 대응체제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일본이 신용거래 후진국이라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신용거래를 높여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거래 편리성 향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

- 특히 도쿄올림픽 대비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각 매장의 인프라 준비가 급선무

02. 개요

[필요성]

◆ 일본의 신용거래 비율은 20% 정도이며 90%에 이르는 한국은 물론 40~50%대인 미국과 유럽에도 크게 뒤져 있음.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이 비율을 4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

-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현금유통량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9.4%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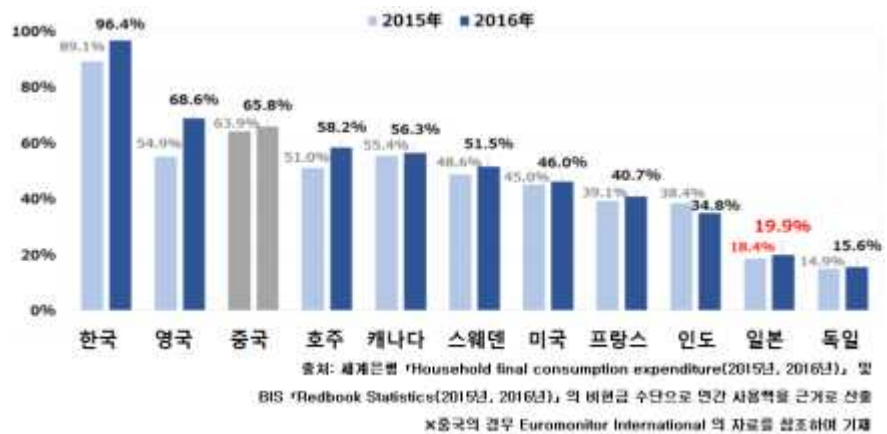
◆ 경제산업성이 조사한 2016년 신용거래 결제는 60조 엔에 달해 2008년보다 70%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20~40대가 점차 늘고 전자화폐로 거래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음

- 연간 신용카드 지출액 역시 2013년 41조7915억 엔 ▲2014년 46조2663억 엔 ▲2015년 49조8341억 엔 ▲2016년 53조9265억 엔 ▲2017년 58조3711억 엔으로 증가세임

03. 일본의 신용결제 동향

◆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디지털 결제 비중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현금 선호 성향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디지털 결제 비중을 현행 수준의 약 2배인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표방함.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결제 시장의 분할현상(Fragmentation)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성과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1> 세계 각국의 신용거래 현황



<표 2> 일본 연도별 신용카드 결제액(단위: 조엔, %)

연도	신용공여액	증감률	신용공여액 전액	증감률
2013	417,915	-	79,876	-
2014	462,663	10.7	85,797	7.4
2015	498,341	7.7	92,804	8.2
2016	539,265	8.2	100,227	8.0
2017	583,711	8.2	110,384	10.1

출전: 일본신용협회

- ◆ 일본 정부는 디지털 결제 수단의 보급 확대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Cashless Society)’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일본의 대형 가전제품 양판점 ‘Big Camera’ 등이 다양한 디지털 결제(Digital Payment) 또는 (Cashless payment) 수단을 활용하려 노력 중
- ◆ 일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높은 현금결제 선호 성향은 디지털 결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음
 - 디지털 결제 비중이 낮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전국의 편의점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는 자동입출금기(ATM), 현금 보유선호, 개인정보 노출 기피현상이 지적되고 있음

- 디지털 결제가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디지털 결제 후 지급 받은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결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편리성, 경제성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디지털 결제를 활용하기 위해 고객들은 많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며, 이들 프로그램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고객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함
- 판매자의 입장에서도 각기 상이한 결제 시스템 특성을 갖는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비용과 절차가 소요되어 꺼리는 상황임

- ◆ 일본의 상당수의 판매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상당한 곤혹감을 느끼고 있음

<표 3>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및 여행 소비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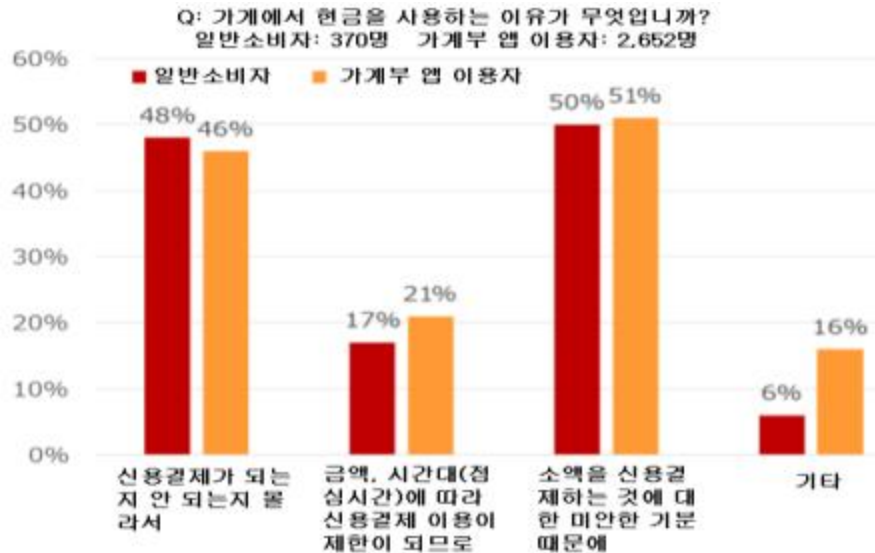
출전: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는 일본정부 관광국, 여행소비액은 관광청의 통계보고를 기초로 NTT데이터 경영연구소가 작성

- 일본 국내의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매장의 경우 13종에 달하는 선불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아직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있음
- 일본 금융청은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방일 외국인 증가를 염두에 두고 2020년까지 디지털 결제 비중을 현재의 약 두 배인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04. 일본내 신용결제에 대한 인식과 동향

- ◆ 일본 소비자들로부터 일반 가게에서의 신용거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일본 신용카드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용결제를 거부하는 가게에 대해 ‘확실히 피하고 있다’ 라든지, ‘피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0~60%에 이르고 있어 신용거래에 대응하지 않아 판매기회가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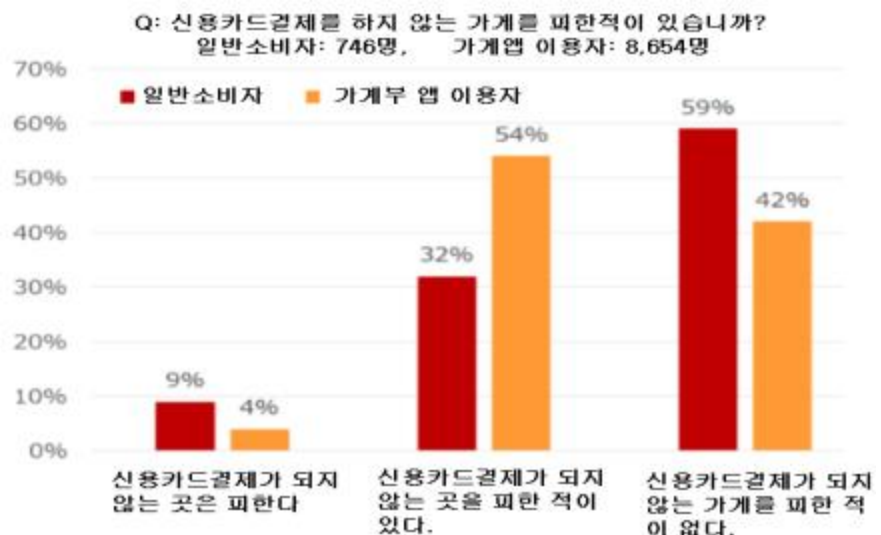
<표 4> 신용카드결제 미 대응 점포의 판매기회 손실에 관한 조사



출전: 2018 日本クレジットカード協会 「キャッシュレス社会の実現に向けた調査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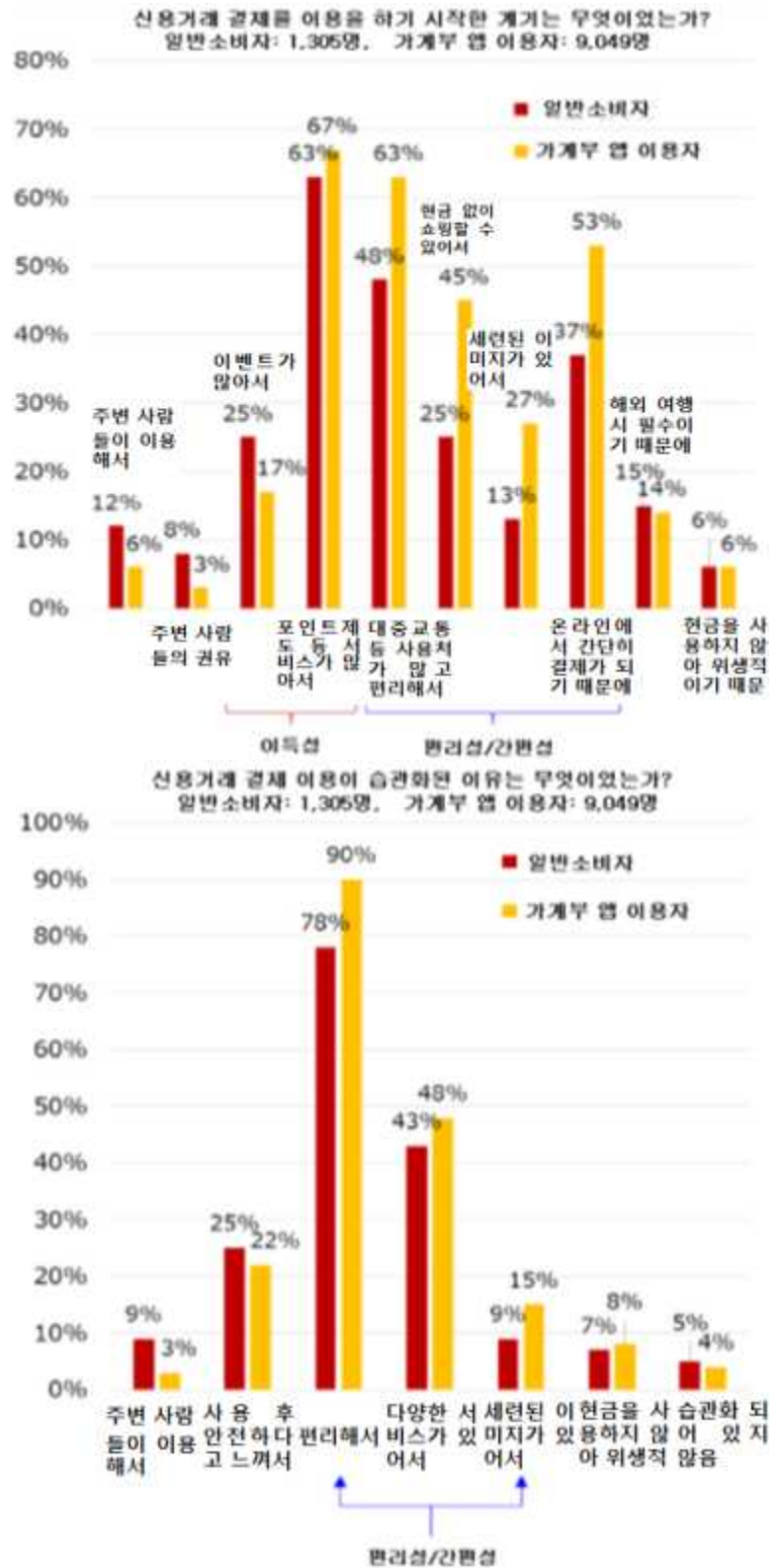
- ◆ 한편 점포들이 신용거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가게의 대응이나 분위기에 현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일본 신용카드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든지, ‘점심은 현금만 받는다’, ‘소액이어서 신용결제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등의 점포의 입장이 되어 배려하는 의견들이 있음

<표 5> 가게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이유



출전: 2018 日本クレジットカード協会 「キャッシュレス社会の実現に向けた調査報告書」

<표 6> 신용결제 이용 계기와 습관화



출전: 2018 日本クレジットカード協会 「キャッシュレス社会の実現に向けた調査報告書」

05. 신용결제 사회 실현을 향한 활동 및 방향

- ◆ 일본 사단법인 신용거래 추진 협회(일본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가 신용거래로~현금 사용 없는 일상이 습관화되어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사회)라 정의하였음. 특히 현금 없이 이용 가능한 점포들을 늘리고, 신용거래 수단들 간의 상호 운영성(인터오페라빌리티)을 확보하여, ‘하나의 신용거래 수단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 전망함.



출처: キャッシュレス・ロードマップ2019(일반사단법인 신용거래 추진 협회) p.78

<그림 1> 일본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 신용거래 사회

~현금 사용 없는 일상이 습관화되어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사회~

- ◆ 금융혁신을 통해 개인/기업/사회 전반에 새로운 가치 창출

'20.6월까지 80개 이상의 은행에 오픈 API* 도입하여 금융기관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로, API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제공받는데 그치지 않고 응용 개발할 수 있어 개발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 FinTech 기업육성을 위해 3가지 지표(KGI, Key Goal Indicator)를 설정

- (비현금 결제비율) 현금거래는 지급·결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FinTech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카드 등 비현금 사용을 촉진하여 '27.6월까지 비현금결제비율 40%(현재 2배 이상) 달성
- (사무지원 업무 효율화) '22.6월까지 클라우드 등 IT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무지원 업무를 효율화하는 중소기업

업 비율 40%(현재 9%) 달성

- (자금순환효율 개선) 중소기업 자금순환을 위해 '20년까지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현금전환주기(SCCC)*를 5% 개선

* SCCC란 공급사슬(supply-chain)내 현금전환주기(cash conversion cycle : 매출채권 회수일수+재고일수-매입금 지불일수)로 자금순환 척도로 사용됨

◆ (정부정책) 이용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FinTech 환경구축

○ (FinTech 전제조건 정비) ①데이터 유통환경 정비, ②비현금 사회 실현, ③전자결제 보안 강화로 FinTech가 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인정보를 본인 스스로 이용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그룹내 또는 그룹간 데이터 공유를 원활히 하도록 제도(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17.2월 공표, '17.5월 시행)를 정비

* (주요국 개인정보보호법) 미국은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으며, 개별 영역 에서 다수 법률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EU와 일본은 포괄적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EU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 일본은 개인데이터 보호와 동시에 데이터 유통 촉진에 중점

- FinTech 촉진을 위해 금융청은 '18.4월부터 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업종별로 규제하는 종적규제에서 단일 법률로 일체화하는 횡적규제로 변경



자료 : "フィンテック補給へ新法 金融庁, 銀行決済や送金安く('17.10.13)", 日本経済新聞

<그림 2> 단일 법률로 일체화하는 횡적규제도

- ◆ (원활한 자금유통) ①본인인증 디지털화, ②행정 데이터 개방, ③금융 서비스 디지털화로 자금흐름 효율화 실현
 - 스마트폰으로 마이넘버(개인식별 번호, '15.10월 시행) 카드를 인식하는 등 오프라인 본인인증 강화
 - 행정수속을 디지털화(법인 Information '17.1월 가동) 하고 '20년까지 [관민 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을 토대로 중점분야의 데이터를 개방
 - 블록체인 시범 플랫폼에서 전자기록 채권거래 및 본인인증, 결제·물류 정보 관리 등 금융 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실증실험 추진

- 국제적 연구기관과 연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추진 하고 국제적 컨소시엄에 금융당국의 참가 등을 검토

◆ ‘화폐’의 흐름과 ‘금융’의 변화로 개인과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문제를 해결

- FinTech 도입으로 ①화폐 형태의 변화, ②FinTech 기술의 발전, ③금융의 변화, ④금융 담당 주체의 변화 발생
 - (화폐 형태의 변화) 현금 → 모바일결제, 전자화폐, 가상화폐 - (FinTech 기술의 발전) AI기술, 빅데이터 처리 능력, 블록체인 기술 등
 - (금융의 변화) 인터넷·스마트 폰으로 공간을 초월한 금융을, 빅데이터 분석, AI를 이용해 시간(축적된 경험)을 초월한 금융을 제공
 - (금융 담당 주체의 변화) 은행·보험 등 기존 업권별로 분리된 금융기관이 FinTech 기업 참여로 연결되고, 비금융기관도 금융의 기능을 수행
- (개인과 기업) 금융생활이 변화하며 효율성 생산성이 증가
- (사회) FinTech 기술을 통해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문제 해결
 -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FinTech 기술로 온라인 계좌개설이 가능해지고, 비금융기관이 자금중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도 금융접근이 용이해짐
- ⇒ (새로운 가치 창출) FinTech가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은 개인/기업/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혁신의 원동력 역할
 -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행중
 - * 미국 Project Catalyst('13), 영국 Project Innovate('14), 싱가포르 FinTech&Innovation Group('15)

<표 7> 일본 신용사회로의 로드 맵

범례	2019年度	2020年度	2021年度	2022年度	2023年度	2024年度	2025年度	2027年度
● 기간내 실시할 활동 ○ 기간동안 실시할 활동								일본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신용거래
신용거래 사회								
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신용거래 수단 선택 가능	소비자 스스로 신용거래 수단을 선택하고 미요할 수 있는 환경정비(교육활동 및 체험사업) "안심, 안전, 안정"을 강조하는 활동 지속(부정 이용보상, 피해시 보상)							
② 신용거래 대응 정보들의 확대	도입 허를 낮추는 환경 조성 분쟁 오피레이션 부담 삭감 방화 외국인 대응(관광지, 상점지 외)							
③ 신용경제로 다양한 제력 서비스 제공	소비자 권익 사업대응, 경쟁사업에 최대한 활용하여 활동, 모시기, 간사이 엑스포 대응 인프라-형태 점포내 가격의 시각화(신용거래 전환과 소비자들의 민생다보 무어)							
④ 계산대리는 개념이 사라짐	신용거래 전환 관련 조사, 서비스크럼션 대응, 5G 상용화 대응 신용거래 전환 관련 확대, 공체의 최고도달, IoT 공체(대용 공체 데이터등) 대응, 시점추진, 수위 개인, 무인 계산대 확대							
⑤ 개인간 송금은 디지털로 이행	공통 ID/eKYC 검토, 상호운영성 확보 위한 외국사제조사, 상호운영성 필요 및 집행방법 구체화 공통 ID/eKYC 구축, 상호운영성이 확보된 개인간 송금 (서도 다른 앱 서비스간의 송금 가능)							
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의 편리성 향상	각종 테스트 내용 검토, 지역의 데이터 축적 (채택시 초회 대응 등), 데이터 포켓 내용검토, 업계 공통 데이터 검토, 샌드 박스 내용검토 지역의 데이터 활용 (지역활성, 마케팅), 지역의 데이터 활용 (지역간 연대), 정보, 경제 사업자, 제도화되기 데이터들과 샌드박스를 이용한 서비스 확충							

06. 결론 및 시사점

[결론]

- ◆ FinTech 선진국이나 급성장 국가와 비교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FinTech 투자액은 낮은 편으로 FinTech 분야는 걸음마 단계

	FinTech 선진국		FinTech 급성장 국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FinTech 투자액 (2015년)	12,212 백만달러 YoY : 21%	974 백만달러 YoY : 53% 對美 : 8.0%	770 백만달러 YoY : 843% 對美 : 6.3%	65 백만달러 YoY : 1,891% 對美 : 0.5%	69 백만달러 YoY : 663% 對美 : 0.6%	65 백만달러 YoY : 20% 對美 : 0.5%
경제규모 GDP (2014년)	17,348 십억달러	2,989 십억달러	3,868 십억달러	272 십억달러	308 십억달러	4,605 십억달러

자료 : "フィンテック, 発展する市場環境: 日本市場への示唆", Accenture

- ◆ 비현금 결제비율이 90% 수준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일본은 현금거래 비중 8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비현금 결제를 독려하고 있음
- ◆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 비현금 거래를 독려하자 간편결제 시장에 대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한국의 기업들의 일본진출이 기대됨
- ◆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 노동조건 최적화를 꾀하고 있음

[시사점]

- ◆ 일본 금융기관은 상당히 보수적이며, 핀테크에 관심은 높으나 적극적인 도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 ◆ 한편 일본 기업은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빠른 실적을 낸다기보다 기술력을 토대로 조금씩 실적을 입증하며 접근하는 것이 필요
- ◆ 네이버가 일본 현지 기업과의 출혈경쟁까지 나서며 6월 초 '라인페이'의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음
- ◆ 카카오페이도 지난해부터 '글로벌 결제서비스'의 첫 국가로 일본으로 잡고 7월초 서비스를 시작
- ◆ NHN페이코도 8월 13일 일본에서 페이코(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
- ◆ AI·블록체인 등 사업부를 보유한 종합 핀테크 기업인 데일리금융그룹,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보유한 한국 NFC사 등이 일본 진출을 준비 중
- ◆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100대 FinTech사('17년)에 1개사씩만 포함되었고,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FinTech 업체간 협업 비율도 1위 독일(70%)에 비교하면 일본(30%), 한국(14%)로 낮은 편으로 평균(32%, '16년)을 하회하며 양국 모두 FinTech 분야는 후발주자로 이를 위한 투자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
- ◆ 한국의 경우 또한 노동인구 감소가 큰 사회적 이슈이며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일본의 핀테크 활용방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금융보안원(2015) “아시아 핀테크 서비스 주요사례 조사”
- 이광상(2017) “일본의 디지털결제 동향과 시사점”
http://www.kcft.or.kr/wp-content/uploads/2017/11/131559864052423097_03-26-23-i2.pdf(2019.10.13.검색)
- 一般社団法人キャッシュレス推進協議會(2019.4), “キャッシュレス・ロードマップ2019”
https://www.paymentsjapan.or.jp/wordpress/wp-content/uploads/2019/04/Cashless_Roadmap_2019.pdf(2019.10.11.검색)
- 一般社団法人FinTech協會(2016.11.9.)“FinTechの最新動向と今後の可能性”
<https://www.hkd.meti.go.jp/hokim/20161019/siryou1.pdf>(2019.10.9.검색)
- キャッシュレス社會の實現に向けた調査報告書
http://www.jcca-office.gr.jp/visit/0218_report.pdf(2019.10.11.검색)
- 日本クレジットカード協會(2019.2), “キャッシュレス社會の實現に向けた調査報告書”
http://www.jcca-office.gr.jp/visit/0218_report.pdf(2019.10.11.검색)
- IBK기업은행(2018.4) “아베의 성장로드맵 <Society5.0>과 시사점”
- 배윤경(2019) “NHN페이코, 일본 진출 `코앞`... 해외 결제 시장 가시화”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6/404546/>(2019.10.11.검색)
- 김경림(2019). “카카오·NHN까지...○○페이, 해외 진출 가속”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4031>(2019.10.13.검색)
- 観光(2017)“廳平成29年「訪日外國人消費動向調査」年次報告書”
<https://www.mlit.go.jp/common/001230775.pdf>(2019.10.13.검색)
- 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CON.PRVT.CD>(2019.10.13.검색)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S “Red Book: CPMI Countries”
https://www.bis.org/list/cpmi/tid_57/page_1.htm(2019.10.13.검색)



발행일 : 2019. 10. 30
발행처 : 융합연구총괄센터
센터장 : 노영희 교수
작성자 : 정근하 박사